한국어 형용사 전자사전 DECOS-ADJ의 어휘부 구축을 위한 몇가지 논의

남 지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Nam, Jee-Sun. (2003). Some issues on the construction of the electronic lexicon of Korean adjectives. *Language Research* 39(1), 205-241.

This paper aims to discuss some problematic issues on adjective entries in actual Korean dictionaries in order to construct the electronic lexicon of Korean adjectives DECOS-ADJ. We discussed first of all about the items that should be ruled out from the lexicon of adjectives: they are some defective forms, verbs wrongly classified as adjectives in actual dictionaries, complex adjectival phrases, derived forms from some idiomatic and foreign expressions and archaic items we do not encounter any more in modern Korean texts. In Chapter 3, on the contrary, we considered some items which should be included in the lexicon of adjectives: '*N-ida*' adjectives and '*X-jeg-ida*' adjectives. And some adjectives related to so-called 'onomatopoeia' expressions are reviewed and revised. We finally presented our electronic lexicon of adjectives DECOS-ADJ which contains about 6,000 items classified into around 150 classes. These classes obtained according to morphological ending forms are crucial for automatic generation of inflectional forms of Korean Adjectives(i.e. DECOF-ADJ), which is indispensable for automatic morphological analysis of Korean texts.

Key words: Korean adjective, nomenclature, *N-ida, X-jeg-ida,* onomatopoeia, electronic lexicon,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1. 머리말

본 연구는,[1] 한국어 형용사(adjective) 전자사전 DECOS-ADJ의 어휘부 구축을 위하여 현행 인쇄 사전에 등재된 형용사 표제어 어휘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여기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2] 형용사 전자사전 DECOS-ADJ는, 실제 텍스트

1) 본 연구는 200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한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세심한 지적과 제안이 본 논문의 내용을 더 명료하게 기술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 여기서 논의되는 문제들은 Nam(1990, 1991, 1996a, 1996b)의 형용사 연구들에서 획득된 결과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를 자동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활용형' 전자사전 DECOF-ADJ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형 사전으로, 프랑스 LADL/IGM 연구소의 프랑스어 전자사전 DELA 시스템[3]과의 호환성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 기본형 사전의 표제어를 구성하는 거시적 관점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실제 관련 언어 정보의 표상에 관한 미시적인 논의는 배제되었음을 밝혀둔다.[4]

형용사 범주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형용사 범주 전체에 대한 연구로부터 개별적인 몇 가지 현상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다양하며, 이론적인 배경이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다. 언어 이론적인 측면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종결될 수 없는 논쟁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실제 주어진 텍스트를 자동 처리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전자사전'의 구성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잠정적인 선택이 강요된다.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선택은 자의적이고, 정당화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전자사전의 어휘부를 구축하고자 한 본 연구의 성격은 이러한 맥락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형용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비판 및 이론적인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쟁을 전제로 전개되는 이론언어학적 논의의 성격을 벗어나, 실제 한국어 대형 인쇄사전류들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어휘부를 구성하는 작업이 얼마나 복잡하고도 어려운 작업인가 하는 문제를 재조명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대형 사전들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현재 어느 방식으로든지 100%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 방안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선 문제의 양상들을 가능한한 상세히 제시하고 기술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며, 이에 대한 잠정적인 하나의 선택으로서 어떠한 해결 방안이 가능할 것인가를 보이는 것이 이 글의 부차적인 목표가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다음 2장에서는 현행 인쇄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외시키거나 잠정적으로 유보하고자 하는 유형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3장에서는 반대로 현행 인쇄 사전에는 부재되어 있으나 형용사 어휘부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유형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이 구성된 한국어 형용사 전자사전 DECOS-ADJ을 소개하고 여기 수록된 약 6,000여개의 형용사 전체에 대한 끝음절별 클라스에 대하여 논의한다. 한국어 형용사의 끝음절을 살펴보면 약 150여개의 유형이 발견되는데, 이는 형용사 활용형 사전 DECOF-ADJ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형용사 활용 클라스의 구성[5]에 기본적인

3) 프랑스 전자사전 시스템 DELA에 대해서는 Courtois(1987), Gross(1993), Silberztein(1993) 등을 참고할 것.

4) 한국어 전자사전의 미시적인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는 문화부 지원 21세기 세종전자사전의 예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홍재성 외(2001)를 참고할 것.

5) 본 연구에서 소개된 150여개의 끝음절별 유형은 현재 15개의 활용 클라스로 재구성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소개될 것이다.

단계가 된다. 형용사의 활용 클라스를 획득하는 데에 있어, 전통적인 문법서에서 처리하듯이 형용사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종성 및 모음의 속성에 기반하여 이들을 분류하지 않고,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별 유형을 기반으로 개별 클라스를 설정한 것은, 텍스트 자동 처리시 형용사 연쇄에 대한 음소단위 계산을 전제하는 '규칙(rule)'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전기반 프로세싱(lexicon-based processing)'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6] 한국어 용언은 상대적으로 그 활용형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7] 초기 한국어 자동 처리 시스템에서는 하드웨어 및 그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기본형만을 전자사전에 수록하고, 내장된 활용 규칙에 의해 그 활용 정보를 획득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규칙기반 프로세싱(rule-based processing)'이 주도해 왔다.[8] 그러나 하드웨어의 발달과 함께 대용량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하는 기법들이 등장함에 따라 술어의 모든 활용 형태 자체를 곧바로 사전에 내장하고, 이를 검색함으로써 텍스트에서 발견된 형용사 연쇄에 대한 분석 결과가 즉각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사전기반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되었다.[9]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다음 문장에서 발견된 형용사 어휘에 대하여,

(1) 그는 <u>호화로운</u> 저택에 산다

만일 '호화롭다'와 같은 기본형 표제어만을 내장한 전자사전을 사용하는 자동 분석 시스템은, 이에 대한 해당 정보를 찾아오기 위해서 '호화로운'으로부터 몇 단계의 음소단위 계산을 수행한 후 이와 관련된 형태규칙을 적용하고, 이때 '호화롭다'라는 기본형과 관련된다는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반면 '호화롭다'와 같은 기본형에 대응되는 모든 활용형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활용형 전자사전을 사용하는 자동 분석 시스템은 주어진 텍스트에서 '호화로운'과 같은 형용사 활용형을 만나는 순간, 사전 검색 작업만으로 원하는 분석 결과를 할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용형 사전은 기본형 사전과 활용 어미 사전에 수록된 활용 클라스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형용사 기본형의 끝음절별 클라스 설정 - 150여개 유형.

[2] 각 끝음절에 대하여 활용 어미와 결합할 때 형성되는 변이형들[10]을 데이터

---

6) 사전기반 프로세싱의 경우에도 활용형 사전의 생성에 음소단위 계산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음절 단위 조합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7) 활용어미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용언 활용형의 전체 수는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본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구축한 활용어미 목록은 약 6,000여개 정도의 복합 구성 형태를 내장하고 있다.

8) 규칙기반 프로세싱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강조하는 것이 '경제성'의 원리이다. 그러나 이 경우, 프로그램이 더 복잡해질 뿐 아니라 결과의 정확성도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한국어 관련 연구로 강승식/김영택(1992)와 김덕봉/최기선(1993)의 논의를 예로 들 수 있다.

9) 가령 프랑스 LADL/IGM 연구소에서 개발된 DELA 전자사전이 이러한 예인데, 활용형 전자사전 DELAF는 유한 트랜스듀서(Finite-State Transducer)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약 800,000개에 이르는 활용형 표제어가 약 1.6MB의 크기로 압축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ohri(1994), Gross(1993)을 참고할 것.

10) 이때의 '변이형'이란 어간 끝음절을 내포한 성분을 음절 단위로 인식한 것으로, 언어학적 단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베이스화함. (예를 들어 '차(다)'나 '롭(다)'에는 각각 '차/찬/찰/찼..', '롭/로'이 존재하며, '작(다)'과 같은 경우는 불변이므로 '작'만이 존재.)

[3] 이때 동일한 유형의 활용 어미들을 취하는 끝음절 클라스들을 다시 재구성하여 활용 클라스 코드를 부여함 (예를 들어 '맑(다)', '맞(다)', '찮(다)' 등은 모두 '은/으니/았/고...'등을 취하며, '적(다)', '쩍(다)' 등은 '은/으니/었/고..'등을 취함) : <그림 1>과 <그림 2> 참조

[4] 동일한 활용 클라스 코드를 갖는 형용사와 활용 어미들을 컴파일하여 활용형 사전을 자동 생성함.[11] <그림 3> 참조

1	Lemma	Cat	R1	R2	R3	R4	R5
2			E	ㄴ	ㄹ	ㅂ	ㅆ
3	차다	A1	차	찬	찰	찹	찼
4	짜다	A1	짜	짠	짤	짭	짰
5	비싸다	A1	비싸	비싼	비쌀	비쌉	비쌌
6	뛰어나다	A1	뛰어나	뛰어난	뛰어날	뛰어납	뛰어났

<그림 1>

1	EM1	EM2	EM3	EM4	EM5
2		ㄴ	ㄹ	ㅂ	ㅆ
3	고/EM_AD	가/EM_DE	까/EM_IN	니다/EM_DE	어/EM_DE
4	니/EM_AD	가요/EM_DE	까요/EM_IN	니까/EM_IN	어요/EM_DE
5	면/EM_AD	걸까/EM_IN	까봐/EM_IN	디까/EM_IN	으니/EM_AD

<그림 2>

DECOTEX

File Graph List Lexicon Tools

A1pfst

key exact lexical cat 이동 firstSyll

Num	Key	Lemma	Category	
1	뛰어나고	뛰어나다	A1	고/EM_AD
2	뛰어나니	뛰어나다	A1	니/EM_AD
3	뛰어나면	뛰어나다	A1	면/EM_AD
4	뛰어난가요	뛰어나다	A1	ㄴ가요/EM_DE
5	뛰어난가	뛰어나다	A1	ㄴ가/EM_DE
6	뛰어난걸까	뛰어나다	A1	ㄴ걸까/EM_IN
7	뛰어날까봐	뛰어나다	A1	ㄹ까봐/EM_IN
8	뛰어날까요	뛰어나다	A1	ㄹ까요/EM_IN
9	뛰어날까	뛰어나다	A1	ㄹ까/EM_IN
10	뛰어납니까	뛰어나다	A1	ㅂ니까/EM_IN
11	뛰어납니다	뛰어나다	A1	ㅂ니다/EM_DE
12	뛰어납디까	뛰어나다	A1	ㅂ디까/EM_IN
13	뛰어났어요	뛰어나다	A1	ㅆ어요/EM_DE
14	뛰어났어	뛰어나다	A1	ㅆ어/EM_DE
15	뛰어났으니	뛰어나다	A1	ㅆ으니/EM_AD
16	비싸고	비싸다	A1	고/EM_AD
17	비싸니	비싸다	A1	니/EM_AD
18	비싸면	비싸다	A1	면/EM_AD
19	비싼가요	비싸다	A1	ㄴ가요/EM_DE
20	비싼가	비싸다	A1	ㄴ가/EM_DE
21	비싼걸까	비싸다	A1	ㄴ걸까/EM_IN
22	비쌀까봐	비싸다	A1	ㄹ까봐/EM_IN
23	비쌀까요	비싸다	A1	ㄹ까요/EM_IN
24	비쌀까	비싸다	A1	ㄹ까/EM_IN
25	비쌉니까	비싸다	A1	ㅂ니까/EM_IN
26	비쌉니다	비싸다	A1	ㅂ니다/EM_DE
27	비쌉디까	비싸다	A1	ㅂ디까/EM_IN
28	비쌌어요	비싸다	A1	ㅆ어요/EM_DE
29	비쌌어	비싸다	A1	ㅆ어/EM_DE
30	비쌌으니	비싸다	A1	ㅆ으니/EM_AD
31	짜고	짜다	A1	고/EM_AD
32	짜니	짜다	A1	니/EM_AD

<그림 3>

11) 형용사 기본형 사전(DECOS-ADJ)과 활용어미 사전(DECOM-AM)으로부터 형용사 활용형 사전(DECOF-ADJ)을 자동 생성하는 작업은 DECOTEX-V01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DECOTEX 프로그램은 프랑스 LADL/IGM 연구소에서 개발된 INTEX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구현된 전자사전 구축 및 텍스트 자동 처리를 위한 도구(tool)로서, 이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여기서 형용사 범주에 대한 현행 인쇄사전들의 처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형용사'라는 범주 설정 자체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는 형용사라는 별도의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반대로 형용사라는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궁극적으로는 서양문법에 대한 직·간접적 참조에 의해 그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같은 논쟁은 철저히 소모적인 것으로 결코 종결될 수 없는, 전형적인 언어 이론적 논쟁의 취약점을 보이는 한 예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부류의 명칭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어휘 형태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이 연구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외연의 설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대상(X)은 다음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X = {한국어에서 활용어미를 취하는 어휘 성분 중에서, 현재시제 서술형 활용어미로 'ㄴ다'를 취할 수 없는 모든 어휘 성분들}

이와 같은 형식적 기준에 의해 선정된 일련의 어휘 성분들을 살펴보면,[12] 이들에 대한 명칭이 어떠하건 간에 'ㄴ다'를 취할 수 있는 성분들과의 형태·통사·의미적인 차이들이 발견된다. 우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어휘 성분들(X)에 대하여 '편의상' 현행 인쇄 사전류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용사'라는 명칭을 일단 사용하기로 하였다. 명칭 자체의 부재나 아니면 새로운 명칭의 할당은 불필요한 혼동만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편의상 형용사로 명명하고 있는 모든 어휘 성분들은 위에서와 같이 형식적으로 정의된 어휘 성분들(X)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 형용사 표제어의 한정

현행 인쇄 사전류[13]에는 '형용사'라는 품사 범주가 설정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부재하고 있어 사전마다 그 표제어의 선정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동사/형용사의 구분은 '의미적인 속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14] 가령 다음 예들을 보면 사전마다 그 의미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처

12) 여기서 왜 하필이면 '현재시제 서술형 활용어미로 'ㄴ다'를 취할 수 없는 어휘 성분들'에 대한 연구에 국한하였는가 하는 질문은 무의미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한국어 모든 어휘 성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자 사전의 구축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대상의 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우선 순위의 설정에 불과하다.

13)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쇄사전류로서 이희승 <국어대사전>, 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다.

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해당하다
붐비다
번창하다

위의 예들은 사전에 따라 형용사로 또는 동사로, 또는 (그 의미나 쓰임이 동일함에도) 위의 2 가지 품사로 이중 분류되고 있다.[15]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적인 해석에 기반하여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가령 다음을 보자.

(3) 관하다
들끓다
번영하다

위의 예들은 (2)의 예들과 의미적으로 매우 가깝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현행 사전들은 모두 '동사' 표제어를 제시하고 있다.[16] 의미적으로 유사하나 현행 사전들 모두에서 형용사와 동사로 구별되고 있는 더 명확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4) 박식하다 - 무지하다 - 과도하다

(5) (넓게)알다 - 모르다 - 넘다

위의 예들의 경우, 현행 사전들이나 학교 문법에서 (4)는 형용사로, 그리고 (5)는 동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현행 사전들이 형용사 범주를 정의할 때 의미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이것이 동사 부류와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형용사에

---

14) 가령 최현배(1929, 1989)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그림씨란 일과 몬의 바탈과 모양과 있음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또는 그리는 씨를 이름이니; ... '착하다, 따듯하다, 높고, 두텁고, 밝다, 있다'와 같은 따위이니라. 움직씨는 일과 몬과 움직임을 나타내는 씨를 이름이니; ... 가다, 생각하다, 흐르다'와 같은 따위들이다."

15) 예를 들어, '해당하다'는 이희승 사전에서는 '자동사'로, 신기철/신용철 사전에서는 '형용사'로, 한글학회 사전에서는 '자동사'로, 그리고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서는 '동사'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붐비다'는 이희승 사전과 신기철/신용철 사전에서는 '형용사'로, 한글학회 사전에서는 '자동사'와 '형용사'의 이중 품사로, 그리고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서는 '동사'로 분류되어 있다. '번창하다'는 이희승 사전에서는 '형용사'로, 신기철/신용철 사전과 한글학회 사전에서는 '형용사'와 '자동사'로 이중 품사로, 그리고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서는 '동사'로 분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전별 차이는 앞으로는 특별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일일이 열거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16) 단 '번영하다'의 경우에는 이들 사전들 모두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이중 품사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현행 사전에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는 유형들에 대하여 이들 성분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적 속성을 기술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형태·통사적인 속성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령 '형용사'로 정의될 수 있는 형태들은 현재형 활용어미에서 관형형 및 서술형 활용이 동사와 다른 점, 명령형이 대체로 불가능한 점, 대격보어 형태를 취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형용사 범주 설정을 위한 명시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용사 전체에 대한 의미·형태·통사적인 속성들이 논의되는 것은 논의의 전개가 뒤바뀐 것이라는 점이다. 일정 형식적 기준에 근거하여 '형용사'라는 하나의 문법범주가 설정된 후, 이 기준에 의거하여 그 외연이 확정되고, 이와 같이 획득된 실제 어휘들에 대한 귀납적인 관찰을 통해 의미·형태·통사적인 속성들이 열거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현재시제 서술형 어미 'ㄴ다'의 불가능성'을 연구 대상 한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관형형 활용이나 명령형은 대부분 잉여적이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서술형과 상반되는 경우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연구의 대상을 이와 같이 현재시제 서술형 어미 'ㄴ다'의 불가능성으로 한정짓게 되면, 가령 다음과 같은 형태들에 대한 일관된 처리가 가능해진다.

(6) 그런 말에 속다니 그는 너무 못났다
그 아이는 정말 못됐다
그 남자는 어깨가 딱 바라졌다

위에서 나타난 술어 '못나다'와 '못되다', '바라지다'는 현재형 서술형에서 'ㄴ다' 어미를 허용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간주되는 어휘들처럼 활용 어미로 '다'를 취하고 있지도 않다.

(7) 그런 말에 속다니 그는 너무 (*못난다 + *못나다 + 못났다)
그 아이는 정말 (*못된다 + *못되다 + 못됐다)
그 남자는 어깨가 딱 (*바라진다 + *바라지다 + 바라졌다)[17]

본 연구에서 이들은 'ㄴ다'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형용사의 범주에서 취급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형 서술형에서 '다' 어미대신 '었다' 유형을 취하는 형용사는 약 40여개가 관찰된다.

반면, 다음의 예는 서술형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불구 용언의 경우를 보인다.

(8) 가공할 사건
그 사건은 (*가공하다 + *가공한다 + *가공하였다)

17) 참고로 현행 인쇄사전에는 이들은 모두 '못나다', '못되다', '바라지다'의 형태로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다.

(9) 애꿎은 사람
그 사람은 (*애꿎다 + *애꿎는다 + *애꿎었다)

위의 예들은 '가공하다', '애꿎다'의 형태로 현행 사전에 형용사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시제 서술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합되는 어미 형태로 'ㄴ다'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관용어구 DB>[18]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게 된다.

다음은 현행 한국어 대사전류에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형용사 전자 사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유형들이다.

2.1. 동사 데이터베이스

다음을 보자.

(10) 기울다
솟아나다
긴장하다
저렴하다
충만하다

앞서 (2)의 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의 예들의 경우도 사전에 따라 동사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는 형용사로 분류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형용사/동사의 이중 품사로 분류되고 있다.[19] 사전마다의 이러한 불일치 현상은 사전편찬학자의 의미적 직관에 의해 야기되기도 하며, 해당 어휘가 가지는 다양한 형태·통사적인 기능에 의한 망설임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ㄴ다'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면, 처음 세 경우는 동사로, 아래 두 경우는 형용사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인다. 따라서 '기울다', '솟아나다', '긴장하다'의 경우는 앞서 (2)의 예에서 제시한 형태들과 함께 <동사 DB>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

18) 뒤의 2.3.을 참고할 것.

19) 가령 '기울다'의 경우는 이희승 사전과 신기철/신용철 사전, 그리고 한글학회 사전에서는 자동사와 형용사로 이중분류되어 있고,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서는 동사로 분류되어 있다. '솟아나다'의 경우는 이희승 사전에는 형용사와 자동사로 분류되어 있고, 그 나머지 사전들에서는 모두 동사로 처리되고 있다. '긴장하다'와 '저렴하다'의 경우는 신기철/신용철 사전에는 각각 형용사와 자동사로 처리되고 있으나 나머지 사전들에서는 그 반대로 등재되어 있다. '충만하다'의 경우에는 이희승 사전과 신기철/신용철 사전에서는 자동사로 처리되고 있고 한글학회 사전과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는 형용사로 수록되어 있다.

2.2. 통사구성 데이터베이스

다음 유형들은 명사에 일정 성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복합 형용사구 표현들이다. 이들은 단일 형용사 표제어로 간주하기 어려운 통사적인 복합 구성의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그 전체 목록의 구축이 쉽지 않다. 이들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이들을 일반 형용사 부류와 분리하여 별도의 <통사구성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2.1. 'N-답다' 유형

다음 예에서 나타난 술어 성분들은 현행 사전의 표제어로 발견되는데,

(11) 민우는 남자답다
인아가 정말 사람답다

이들 'N-답다' 유형은, 명사로부터의 의미 전성이 뚜렷한, 어휘적으로 굳어진 다음과 같은 'N-답다' 형태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12) 민우와 인아가 아주 정답다

즉 (11)의 술어 성분들은 다음의 'N-답다' 유형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3) 인아는 여자답다
그 어른은 정말 인간답다

그런데 (11)과 (13)의 'N-답다' 유형 사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11)의 술어가 사전에 하나의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13)의 경우는 사전에 부재되어 있고 단지 '여자', '인간'만이 명사로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실제로 명사에 '답다'가 결합하여 구성되는 연쇄는 매우 생산적이다.

(14) 민우는 전문가답다
인아는 선배답다
그 사람은 참 어른답다

위의 'N-답다'[20]는 하나의 형용사로 굳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명사'의 성격이 강하

20) 'N-답다'와 관련한 위의 논의는 이희승 사전과 신기철/신용철 사전에 기반한 것으로, 가령 한글학회 사전에서는 위의 예들중에서 '남자답다', '사람답다', '인간답다'와 '어른답다'만이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서는 이들 연쇄가 모두 제외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게 남아 있는 통사적인 구성체의 일종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성분을 삽입할 수 있음이 그 한 증거이다.

(15) 민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답다
민우가 정말 진정한 남자답다

즉 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야 한다.

(16) 민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답다
민우가 정말 [진정한 남자]-답다

이와 같은 통사적 구성 형태로 실현되는 'N-답다' 연쇄를 형용사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과 같이,

(17) 인아는 정말 아름답다

'답다'를 수반하였으나 형용사의 한 유형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형태와는 달리, 위의 형태들은 단순 형용사 표제어로 취급되지 않고 <통사구성 DB>에서 별도로 다루어진다.[21]

2.2.2. 'N-같다' 유형

다음 예에 나타난 'N-같다' 형태들도 현행 사전에서 발견된다.

(18) 파리에서 지나간 시간이 꿈같다
이 점쟁이는 귀신같다

---

21) 그렇다면 여기서 'N-답다'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또한 '답다'는 어떠한 성분으로 분석되어야 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N-답다'가 생성력있는 일종의 통사 구성으로 간주된다면 '답다' 역시 하나의 통사적인 자립 성분으로 전제되는 셈이다. '답다'는 현재형 서술형에 '-ㄴ다' 어미를 허용하지 못하므로 동사로 취급될 수는 없다. 이를 형용사로 처리하게 되면, 일반 형용사들과는 달리 반드시 명사에 들러붙은 형태로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소 이질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용언 부류에서 '지정사', 또는 '존재사'와 같이 한 두개의 어휘 성분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문법 범주를 설정하지 않는 원칙을 취하므로, 형용사로서 왼편에 반드시 '명사'를 동반해야 하는 유형에는 '답다'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같다'와 '이다'도 포함이 된다.

(ㄱ) 이 점쟁이는 귀신같다 (?≠귀신과 같다)
(ㄴ) 이 점쟁이는 여자이다 (↔여자가 아니다)

참고로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을 보면 '답다'는 '접사'로 수록되어 있다. 이 경우 'N-답다'는 일련의 통사적 구성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명사에 접사가 결합한 하나의 파생 형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고 이들은 사전의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어야 할텐데, 이 사전에는 'N-답다'는 모두 제외되어 있다. 현행 인쇄사전의 비일관된 사전 처리의 한 단면이 재확인된다.

반면 다음의 형태들은 등장하지 않는데,

(19) 그 사람은 어린애같다
그 집은 장난감같다

앞의 'N-답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8)의 술어들도 (19)의 술어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통사적인 복합 구성 형태로 보인다.[22] 이들을 구별할만한 특별한 의미적·통사적 차이도 제시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다음과 같이 모두 관형어의 수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파리에서 지나간 시간이 한순간의 꿈같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같다

이 경우도 다음과 같이 완전히 어휘화한 형태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21) 민우와 진오의 키가 똑같다
인아의 거짓말은 감쪽같다

위의 술어들은 (18)-(19)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단일 형용사로 처리되어야 할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관형어 수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22) 민우와 진오의 키가 (*변함없는 + 변함없이) 똑같다
인아의 거짓말은 (*기막힌 + 기막히게) 감쪽같다

위의 '똑같다', '감쪽같다'가 각각 부사어 '변함없이'와 '기막히게'의 수식을 허용하는 형용사 술어들이라면, (18)-(19)의 'N-같다' 형태들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통사적 구성의 한 예로 보인다.

2.2.3. 'N-없다'/'N-있다' 유형
다음 예를 보자.

(23) 이 음식은 정말 맛없다
이 영화는 아주 재미있다

22) 다시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의 예를 들면, 이번에는 다른 사전들처럼 (18)의 'N-같다' 유형을 모두 형용사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다. 앞서 'N-답다' 유형이 이 사전에는 모두 누락되어 있던 현상과는 대조를 이룬다.

위의 'N-없다'/'N-있다' 형태들은 현행 사전에서 발견되는 반면, 다음의 형태들은 발견되지 않는데,

(24) 그 아이는 정말 용기없다
그 사람은 매사에 정말 성의없다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23)의 술어들도 (24)의 술어들처럼 통사적인 복합 구성 형태로 보인다. 'N-없다'/'N-있다'의 경우는 앞서 살핀 'N-답다'나 'N-같다'와는 달리 명사(N)와 분리된 복합 구성체 'N-이 없다'/'N-이 있다'와 체계적으로 대응되는 점을 통해, 더욱 이들을 통사적인 구성체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가령 위의 (23)의 예들은 다음과 같은 복합 술어 구문과 대응된다.

(25) 이 음식은 정말 맛이 없다
그 영화는 아주 재미가 있다

위에서 'N-이 없다'/'N-이 있다'로 실현된 연쇄는 특정 후치사에 의해 분리 가능한 'N-하다'류 형용사들(가령 '친절하다'에 대하여 '친절도 하다'나 '친절은 하다'와 같은 분리 구조)과는 구별된다. 다음과 같은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 이 음식은 정말 (아무런 + 특별한) 맛이 없다
이 음식은 맛이 (정말 + 진짜) 없다

(27) *그 아이는 (특별한 + 대단한) 친절도 하다
*그 아이는 친절은 (정말 + 진짜) 하다

위에서 보듯이, 'N-이 없다'/'N-이 있다' 연쇄는 명사(N)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삽입이 가능하며, 명사(N)와 술어 '없다/있다'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의 삽입이 가능한 반면, 'N-(는+도+만) 하다' 연쇄에는 이와 같은 성분들의 삽입이 허용되지 않는다.[23]

따라서 위의 예들은 단일 형용사가 아닌 통사적 구성의 한 형태로 보여진다.[24]

---

23) 본 연구에서는 'N-없다'/'N-있다'를 'N-이 없다'/'N-이 있다'와 대응되는 통사적 구성체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N-하다' 동사구문을 'N-를 하다'와 대응되는 통사적 구성체(복합 동사구)로 간주한다. 하나의 형용사 어휘로 간주되는 'N-하다' 형용사 유형과는 여러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4) 여기서 다음 예들을 보자.

(ㄱ) 힘세다 / 힘겹다
맷집좋다 / 넉살좋다

위의 예들은 '명사+형용사'의 결합 형태를 하고 있으나 현행 사전류에 하나의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

이들은 다음과 같이 완전히 어휘화한 형용사 유형과는 구별되어 <통사구성 DB>에서 별도로 처리된다.

(28)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다
반백년 인생이 정말 덧없다

2.3. 관용어구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는 일정 관용구나 한자어 4자성어 표현으로부터 '하다'에 의해 형성된 형용사 부류 및 소위 불구 용언 부류로 명명되는 특정 언어 형태들이 논의된다. 이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형용사 사전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관용어구 DB>에서 다루어진다.

2.3.1. 관용구 파생 형용사구
다음을 보자.

(29) 인아의 편지가 온데간데없다
해안가 절벽이 깎아지른듯하다

위 예문의 술어 성분은 여러 개의 단위로 표기가 가능할 뿐아니라,[25] 실제로도 여러 개의 단위들이 결합한 복합 구성으로, 그 의미 및 용법의 굳어진 정도가 심한 유형이다. 위의 형태들의 내적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동사(오다)+관형형어미(ㄴ)+의존명사(데)+동사(가다)+관형형어미(ㄴ)+의존명사(데)+형용사(없다)
동사(깎다)+연결형어미(아)+동사(지르다)+관형형어미(ㄴ)+의존명사(듯)+형용사(하다)

이와 같은 관용구 기반 형용사구 형태는 일반 형용사 부류와는 구별되어 별도의 <관용어구 DB>를 구성하게 된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명사 논항과 형용사 술어(또는 동사 술어)가 결합하여 한 덩어리로 실현되는 것은 한국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들을 일반 형용사(또는 동사) 부류와 함께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의 (ㄱ)과 같은 유형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ㄴ) 힘내다 / 능청떨다 / 심술부리다 ...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므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우도 모두 <통사 구성 DB>에서 분리되어 처리된다.

25) 사전에 따라서는 '온데간데없다', '깎아지른듯하다'처럼 하나의 연쇄로 붙여서 '형용사' 표제어로 등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온 데 간 데 없다', '깎아지른 듯하다'와 같이 여러 개의 연쇄 형태로 표기하여 이를 '형용사' 표제어로 등재한 경우가 있다. '깎아지른듯하다'는 '깎아지르다'를 표제어로 하여 등재되면서 일종의 활용 형태로 간주되는 경우도 관찰된다.

2.3.2. 4자성어 파생 형용사구

현행 사전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한자어 4자성어에 '하다'가 결합하여 형용사 표제어로 등재된 유형들이 발견된다.

(31) 남녀유별하다
산명수려하다
세월여류하다[26]

한자어 4자성어들은 하나의 문장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위의 경우에서도 모두 단순한 명사적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을 술어로 하는 주어의 설정이 어렵다.

(32) ?*민우와 인아는 남녀유별하다
?*시간이 세월여류하다
?*자연이 산명수려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에서 주어 부분이 채워져 있는 것은,

(33) 대한민국은 산명수려하다

'대한민국은'이 주어가 아니라 '장소 보어'로서 주제화되어 실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4자성어에 '하다'가 결합하여 일종의 술어를 형성한 형태들은 일반 형용사 범주와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2.3.3. 불구 용언의 활용어구

다음의 예들은 서술형 활용이 허용되지 않는 어휘 형태들이다. 즉 형용사 범주에서 다루어지기 위한 형식적인 조건인 현재형 활용 어미에 'ㄴ다'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유형이다.

(34) *민우는 (오죽하다 + 오죽한다)
민우가 오죽하면 그 일을 했을까?

---

26) 이들 4자성어의 뜻풀이의 한 예로 한글학회 사전을 보면, '남녀유별'은 명사로 분류되어 '남녀의 사이에 분별이 있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산명수려' 역시 명사로 '산과 물의 경치가 맑고 아름다움'으로 풀이되어 있고, '세월여류'도 명사로 처리되어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빨리 흘러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희승 사전과 신기철/신용철 사전과는 달리 위 사전에는 4자성어에 '하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형용사 표제어는 설정하지 않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서는 위의 예들 중 '산명수려하다'만이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4자성어를 명사로서만 취급하고 있다.

(35) *민우는 (여차하다 + 여차한다)
민우는 여차하면 도망갈 기세다

(36) *그 사건은 (대수롭다 + 대수롭는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37) *인아에게는 그 소식이 (달갑다 + 달갑는다)
인아에게는 그 소식이 달갑지 않았다

위의 형태들은 관형형, 또는 제한된 부사형태의 활용만을 허용한다. (34)의 예는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오죽하여, 오죽하랴' 등과 같은 형태로만 실현되며, (35)의 경우도 '여차하면, 여차하니' 등의 형태로만 실현된다. (36)과 (37)의 경우도 '-지 않다'나 '-게 V-지 않다'와 같은 부정 표현의 구문속에 실현될 때 자연스럽다. 위의 예들은 현행 사전에 '오죽하다', '여차하다', '대수롭다', '달갑다'의 형태로 모두 형용사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형 서술형 어미로서 'ㄴ다'가 결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8)-(9)의 예문에서 살핀 바 있는 불구 용언 활용어구와 함께, <관용어구 DB>에 별도로 저장된다.[27]

2.4. 특수목적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다루어지는 유형은 일반적인 현대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빈번하게 발견되지 않는 특수 형태들을 일컫는다. 통시적인 용법으로 남아 있는 고어 유형과 방언 유형, 그리고 외래어 파생 유형 등이 여기 포함된다.

2.4.1. 고어 유형

다음 예들은,

(38) 가비얍다
가ᄉᆞ멸다
겨를ᄒᆞ다
맛갑다

현행 사전에 {고어} 표현임을 표시하는 일정 표지들과 함께 실현된다.[28] 컴퓨터가 처리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유형이 이와 같은 고어 표현을 함유한 문서라면 이들

27) 소위 '불구형용사' 문제에 대해서는 유현경(1997)에서도 자세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28) 이희승 사전과 신기철/신용철 사전,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서는 이들 고어 유형을 모두 형용사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으나 한글학회 사전에서는 이들을 취급하지 않는다.

형태에 대한 전자사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어 텍스트에 실현 가능한 형용사 유형에 한정하여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이와 같은 형태들은 별도의 <특수목적 DB>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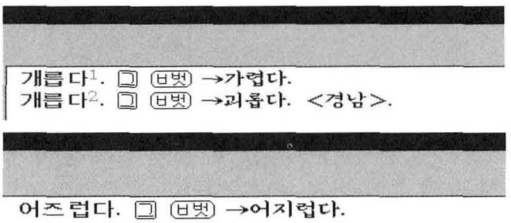
2.4.2. 방언 유형

다음과 같은 예들은,

(39) 어즈럽다
저프다
개릅다

사전에 따라 '고어' 표현으로 등재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 유형으로 처리되기도 하며, 또는 아무런 언급 없이 참조 표시만을 수반하기도 한다. 현행 사전의 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9]

(40)



사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들 유형은 형용사 기본 사전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4.3. 예스런 표현

다음 예는 현행 사전에 특별한 표지가 부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현들과 더불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요구되는 형태들이다.

(41) 가팔지다 길펀하다 무편하다
박홉하다 승겁들다 알매하다

---

29) (40)의 화면은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의 CD-ROM 버전 1.0(1995)을 보인 것이다. 여기 나타난 '개릅다'와 똑같은 의미의 풀이말을 가진 형용사 표제어가 신기철/신용철 사전에서는 '개룹다'라는 형태로 등재되어 있고, '가렵다'의 의미에 <경상>이라는 표지가 붙어있는 반면, '괴롭다'의 의미에는 아무런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형태들은 대부분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 2음절어가 '하다'를 동반한 유형으로서, 실제로 현대 한국어 텍스트에서 거의 쓰임을 찾아보기 어려운 통시적인 표현들이다.[30] 이와 같은 형태들을 포함하는 형용사 전자사전을 구축하게 되면 불필요한 중의성(ambiguity)을 유발시킬 확률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같은 유형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유형들과는 달리 이들 형태들에 대한 판단 근거는, 그 형식적인 표지의 부재로 인해 완전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어휘수가 현행 사전 형용사 표제어 전체에서 1/3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일반 형용사 부류와 분리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은 자동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2.4.4. 외래어 파생 형용사

다음의 예를 보자.

(42) 리리컬하다
애브노멀하다

위의 형태들은 현행 인쇄 사전에 '형용사'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영어의 형용사에 해당하는 'lyrical', 'abnormal'은 한국어에 차용될 때 그 자체로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하다'를 동반한다. 위와 같은 영어 형용사 차용어에 '하다'가 결합한 형태는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하나의 형용사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유형은 그 목록의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영어와 같은 외래어의 어느 정도가 한국어 언어 체계에서 사용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주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사전들에 수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용사 목록은 사전마다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31] 더구나 외래어의 전사 표기에 있어서도 2 가지 이상의 표기가 가능할 수 있다. 가령 위의 '애브노멀하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이형들을 배제하기 어렵다.

(43) 애브노말하다
애브노오멀하다[32]
애브노오말하다

---

30) 실제로 이와 같은 형태들에 대한 사전적 처리도 매우 불규칙해서, 가령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는 '가팔지다'와 '길편하다'는 발견되지 않는 반면, 그 외의 사전들에는 위의 예들 모두가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다.

31) 위의 예들의 경우도 이희승 사전과 신기철/신용철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는 반면, 한글학회 사전과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는 모두 누락되어 있다.

32) 이희승 사전에 '애브노멀하다'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면, 신기철/신용철 사전에는 '애브노오멀하다'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형용사 부류는 <특수목적 DB>에서 별도로 처리된다.

3. 형용사 표제어의 확장

이 장에서는 현행 인쇄 사전에는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 통사·의미적 속성으로 볼 때 형용사 사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2가지 부류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비명시적인 기준에 의해 표제어 선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체계적인 확장이 요구되는 한 어휘 부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우선 현행 사전에서 '형용사'로 처리되지 않은 부류로는 '명사'에 '이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형태들과 'X-적(的)'에 '이다'가 결합하여 구성된 형태들이 있다.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체계적인 확장이 요구되는 부류에는 전통적으로 '의성/의태어'로 명명되어 온 형태에 '하다'가 결합하여 구성된 형용사류가 해당한다.

이외에도 현행 사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형용사 어휘부에 추가되어야 할 기타 유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수적인 면에서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형태들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어휘 현상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의 논의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고 형용사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수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1. 'N-이다' 형용사 유형

3.1.1. 'N-이다' 형용사 정의의 형식 기준

명사에 접미사 '이다'가 결합하여 파생되는 형용사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있다.

(44) 민우는 매사에 열성이다
민우는 떠나려고 안달이다
아이들이 놀러가자고 난리이다

위의 문장들에서 술어로 나타난 '열성이다', '안달이다', '난리이다'는 명사 '열성', '안달', '난리'로부터 파생된 형용사 부류이다.[33] 이들은 다음과 같이 'N-이다'의 연

33) 명사를 수반하는 '이다' 성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의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이다' 자체의 명명에 있어서도 지정사, 서술격 조사, 형용사, 접미사 등 여러 논의가 존재하며, 'N-이다' 연쇄에 대해서도 다양한 통사-의미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N1 N2-이다' 문장에 대해서도 의미, 화용론적 분류 및 논리, 개념적인 분류 등이 여러 관점에서 제시된 바 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학자마다의 견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생략하였다. 여기에서는 'N-이다' 연쇄로 실현될 수 있는 명사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용사 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들에 대하여만 주목하였고, 이때 'N-이다' 전체를 하나의 형용사 술어로 처리하는 입장을

쇄로 나타난 지정사 구문과는 통사·의미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45) 민우는 인아의 동생이다
민우는 변호사이다

가령 (45)의 문장들에 대응되는 의문문의 형태를 보면 (44)와는 전혀 다른 유형이 된다. (45)의 'N-이다'에서 '동생'과 '변호사'는 명사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문에 대응되는 반면,

(46) 민우는 (누구니? + 무엇이니?)

위의 (44)의 '열성', '안달'은 더 이상 명사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문장은 (46)과 같은 의문문에는 대응되지 못하고, 반면 다음과 같은 의문문에 대응된다.

(47) 민우는 어떠니?

또한 (45)의 'N-이다'에는 명사 성분에 대한 관형어 수식이 가능하다면, (44)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48) 민우는 유명한 변호사이다
*아이들이 놀러가자고 엄청난 난리이다

'매우'와 '아주' 같은 정도부사나 '더', '더욱'과 같은 비교부사의 삽입이 (44)의 형태들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위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49) *민우는 (매우+아주) 변호사이다
민우는 매사에 (매우+아주+더+더욱) 열성이다

이와 더불어 'N-이다' 형용사가 일반 지정사 구문과 차이를 보이는 또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들 형용사 구문은 모두 '인물성(<+Hum>)'[34] 자질을 가진 주어만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가령 다음과 같이 주어 위치에 인물성, 또는 비인물성 명사, 그리고 절 등의 분포를 모두 허용하는 지정사 구문과는 달리,

---

취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Nam(1990, 1996a)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34) 여기서 일컫는 '인물성'의 의미 자질은 보다 엄격히 말하면 유생물성, 즉 동물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 형용사는 인간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동물의 경우에도 의인화와 같은 암시적인 장치를 통해 이와 같은 술어의 결합이 허용된다.

(50) 민우는 변호사이다
피아노는 악기이다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N-이다' 형용사는 다음과 같이 '비인물성' 명사 및 절 등이 분포한 주어는 허용하지 않는다.

(51) 그 (피아니스트 + *피아노 +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은 매사에 열성이다

이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N-이다' 형용사를 지정사 구문과 구별하기 위한 다음 <표 1>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의 정립이 가능하다.

<표 1> 'N-이다' 형용사 정의의 형식 기준

'N-이다' 형용사	
기준 1	'N-이다'에 대응되는 의문문은 반드시 '어떠하-?'의 형태이다
기준 2	'N-이다'에 대하여 정도부사 및 비교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다
기준 3	'N-이다'는 반드시 인물성(<+Hum>) 주어를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3가지 형식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명사 부류에 대하여 'N-이다' 형용사를 유도할 수 있는 유형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때 이와 같은 'N-이다' 형태들은 모두 형용사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었다. 여기서 발견된 명사(N)들의 상당수는 'N-스럽다'나 'N-맞다' 유형의 형용사 파생도 동시에 허용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52) 극성이다 - 극성스럽다 - 극성맞다
억척이다 - 억척스럽다 - 억척맞다
주책이다 - 주책스럽다 - 주책맞다
고집이다 - 고집스럽다 - *고집맞다

또한 명사(N)로 사용될 때에도 '떨다'나 '부리다'와 같은 제한된 동사 유형과의 결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53) 극성을 떨다 - 극성을 부리다
억척을 떨다 - 억척을 부리다
주책을 떨다 - 주책을 부리다
*고집을 떨다 - 고집을 부리다

이상과 같이 획득된 명사는 현재 약 100여개에 이르며, 따라서 형용사 전자사전 DECOS-ADJ에 수록된 'N-이다' 형용사의 수도 100여개 정도가 된다. 이들의 예를 좀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35]

(54) 궁상이다 고집이다 능청이다
난리이다 배짱이다 변덕이다
불만이다 심술이다 열성이다
아양이다 안간힘이다 엄살이다

3.1.2. 이중적 성격의 명사 유형 부류

그런데 위와 같은 'N-이다' 형용사 부류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명사 부류가 있다. 다음을 보자.

(55) 민우는 바람둥이이다

위 문장에서 술어로 기능하는 '바람둥이이다'는 위의 3가지 형식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56) 민우는 (?*누구니 + ?*무엇이니 + 어떠니)?
민우는 아주 바람둥이이다 / 민우는 진우보다 더 바람둥이이다
(민우 + *그 물건 +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람둥이이다

그러나 다음을 보자.

(57) 민우가 그 유명한 바람둥이이다

위 문장에 나타난 '바람둥이이다'는 하나의 형용사 술어가 아닌 지정사구 구성으로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8) 민우가 [그 유명한 바람둥이]-이다

다음 통사적 검증들이 이와 같은 의미 해석을 뒷받침한다.

---

35) 이들 'N-이다' 형용사들은 부정<+Neg>의 의미를 형성할 때 'N-이-지 않다'나 'N-이-지 못하다'와 같은 형태보다는 'N-이 아니다'와 같은 형태를 구성하기도 하며 (예: '열성이다'/'열성이 아니다'), 또는 규칙적인 대응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술어구 형태로(예: '아양이다'/'아양을 떨지 않는다') 실현되기도 한다. '이다'의 부정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아니다'의 출현은 다음 3.2.에서 보게 될 'X-적-이다' 구성에서도 관찰된다.

(59) 민우가 누구니? -- 그 유명한 바람둥이야
*민우가 (아주+매우) 그 유명한 바람둥이이다

위의 검증을 통해 볼 수 있듯이 (57) 구문은 다음 (60)과 같은 지정사구 문장이다.

(60) 민우가 그 유명한 변호사이다

이와 같이 형용사 술어 구문과 지정사 술어 구문 모두를 구성할 수 있는 이중적 명사 유형의 예를 좀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61) 건달 겁쟁이 괴짜
구두쇠 깡패 멋쟁이
병신 사기꾼 술고래
악질 철부지 촌놈

이들 명사의 유형은 매우 생산적이며 그 목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36] (61)과 같이 'N-이다' 형용사 구문(예를 들어 (55) 문장)과 지정사 '이다' 구문(예를 들어 (57) 문장)을 동시에 허용할 수 있는 명사에 기반한 'N-이다' 연쇄는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 표제어에서 유보하였다. 실제로 위에서 살핀 (54)의 명사들과 (61)의 명사들 사이의 의미적 특성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인물 주어의 '속성' 및 '상태'를 기술하는 형용사적 서술어 성격이 강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속성의 묘사와 함께 '개체'를 지칭하는 명사적 성격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후자에 나타난 명사들에 의한 'N-이다'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좀더 정교한 논의가 요구된다.[37]

---

36) 다음을 보자.
(ㄱ) 민우는 컴퓨터 기술공이다
위의 문장에 나타난 '기술공이다'를 하나의 형용사 술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인다. 가령 다음과 같은 정도 부사의 삽입이 어렵다.
(ㄴ) ?*민우는 그런 일에 (매우+아주) 기술공이다
반면 (ㄱ)과 의미적으로 동일 계열의 성격을 보이는 다음 문장에서,
(ㄷ) 민우는 컴퓨터 전문가이다
'이다'를 수반한 명사 '전문가'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형용사 술어 구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ㄹ) 민우는 그런 일에 (매우+아주) 전문가이다
'기술공이다'와 '전문가이다'의 쌍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지정사 구성 명사와 이중적 명사 유형 사이의 경계는 그리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들 이중적 명사 유형은 향후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37) 이외에도 'N-이다' 연쇄는 여러 다양한 경로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민우는 (소띠+서울태생)이다
(ㄴ) 진우는 민우와 동갑이다

3.2. 'X-적(的)-이다' 형용사 유형

다음의 예를 보자.

(62) 인아는 이기적이다
민우는 소극적이다

위 문장에서 술어로 사용된 '이기적이다'와 '소극적이다'는 'X-적-이다'의 형태로, 형용사적 성격을 보인다. 이들은 위의 'N-이다' 형용사들이 보이는 통사·의미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가령 (62)의 첫 문장을 살펴보면 앞서 논의한 'N-이다' 형용사 구문의 형식적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63) 인아는 (어떠하니? + *누구니? + *무엇이니?)
인아는 (아주+매우) 이기적이다
(인아는 + *그 물건은) 이기적이다

그러나 위의 'N-이다' 형용사 구문과는 달리 모든 'X-적-이다' 술어에 대하여 인물성 주어의 분포는 필수적이지 않다. 가령 다음을 보면,

(64) 민우는 철저하게 타산적이다
그 결정은 합리적이다
인아가 내일 떠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주어 위치에는 인물성명사, 비인물성명사, 절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X-적'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X-적' 자체가 하

(ㄷ) 이 종이는 (세모꼴+보라색)이다
(ㄹ) 인아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ㅁ) 인아는 내일 떠날 (계획+생각)이다
(ㅂ) 진오는 (석방+사형)이다

위에서 (ㄱ)과 (ㄴ)에 나타난 'N-이다'는 인물성 주어를 요구하고, 대응되는 의문문의 유형도 '(누구+무엇)이니?'보다는 '어떠하니?'에 대응되는 속성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형용사로 처리하는 'N-이다'들과는 달리 '정도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하다. (ㄷ)의 경우는 '어떠하니?' 의문문에 대응되나, 비인물성 주어를 취하고 또한 정도부사의 삽입이 어색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 술어로 분류되지 않는다. (ㄹ)과 (ㅁ)의 경우는 인물성 주어를 취하고 '어떠하니?'에 대응되나 '이다'를 수반한 명사가 반드시 일정 관형절의 수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도부사의 삽입이 어렵고, 또한 '인아는 지금 어떤 상태이니?'/'인아는 어떤 (계획+생각)이니?'와 같은 '어떤 N-이니?' 유형의 의문문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과는 구별되었다. (ㅂ)의 경우도 위의 (ㄹ)과 (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물성 주어를 취하고 '어떠하니?'에 대응될 수 있으나 정도부사의 삽입이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구문속에 실현된 'N-이다' 연쇄는 본 연구에서 형용사 표제어로 처리되지 않는다. (자세한 논의는 Nam((1990, 1996a)을 참고할 것).

나의 명사인가 관형사인가 또는 그 외의 품사 성분인가와 같은 논의이다. 'X-적-이다' 전체에 대하여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인쇄 사전들에서 'X-적'을 '명사'와 '관형사'의 이중 품사로 정의하고 있는 현상으로부터 주로 문제의 제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현행 사전에서 'X-적'을 '명사'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X-적'이 '명사'로 다루어지는 것은, 우선 '이다'를 '명사를 수반하는 요소'로 특징짓는 데에서 비롯된다. 'X-적'은 '이다'뿐 아니라 '으로'도 동반하는데 '으로'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반하는 후치사의 일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X-적'을 명사로 취급할 수 있는 보조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다'와 '으로'를, 명사를 수반하는 지정사(또는 서술격조사)나 명사 후치사 등으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보다 넓은 기능을 갖는 성분으로 인정하게 되면 'X-적'을 무리하게 명사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다'를, 앞서 'N-이다' 유형의 형용사에서도 본 바와 같이, '스럽다'나 '하다'와 같은 형용사 접미사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이때 'X-적-이다'는 '이다'에 의해 유도된 형용사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X-적' 구성은 형용사를 유도할 수 있는 일종의 어기와 같은 성분이 된다. 또한 '으로'는 '이다'류 형용사를 부사화해주는 접미사의 한 유형(가령 '히'가 '하다'류 형용사를 부사화해주는 파생접미사인 것처럼)으로 간주되었다.[38]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X-적-이다' 형용사 부류와 'X-적-으로' 부사 부류는 설정하는 반면, 'X-적'이라는 명사 부류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취하였다.[39]

(65) <형용사> :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기적이다
<부 사> :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다'류 형용사에 대한 '으로'류 부사의 파생 관계 설정의 가능성은 'N-이다'류 형

---

38) 실제로 본 연구에서 구축된 'X-적-이다' 형용사 구문에 대하여 부사적 의미의 'X-적-으로'의 대응관계는 매우 규칙적으로 관찰된다. 가령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민우는 매사에 아주 이기적이다
= 민우는 매사에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위에서 나타난 '행동하다'는 부사 '이기적으로'를 지지하는 일종의 기능동사로 보인다. 즉 다음 예에서 보이는 관계쌍과 함께,

(ㄴ) 민우는 누구에게나 아주 건방지다
= 민우는 누구에게나 아주 건방지게 (행동한다 + 군다)

아래와 같이 형식화될 수 있다.

(ㄷ) N0 W Adj
= N0 W Adj-adv Vsup

'형용사' 술어 구문과 대응관계를 보이는 '서술부사-기능동사' 술어구문에 대한 논의는 Nam(1995)에서 언급된 바 있다.

39) 'X-적-이다'와 'X-적'에 대한 본 연구의 입장은 남지순(2001)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용사 부류 중에서도 발견된다.

(66) 열성이다 - 열성으로
억척이다 - 억척으로

이번에는 현행 사전에서 'X-적'을 관형사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다음 예에서,

(67) 합리적 사고
이기적 행동

'X-적'은 뒤에 아무런 표지를 수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에 실현되었다. 위와 같은 구성에서 실현된 'X-적'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사전에서는 'X-적' 형태를 관형사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과 연관된 다음과 같은 구성들이 발견된다.

(68) 합리적인 사고
이기적인 행동

위의 (67)과 (68)의 구문은 통사·의미적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전에서의 처리 방식을 따르면 (67)의 'X-적'은 하나의 '관형사'가 되는 반면, (68)의 'X-적-인'은 '명사'('X-적')에 '이다'의 활용형이 결합한 복합 구성체로서, 이들은 별개의 형태·통사적 구성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67)의 'X-적'을, 'X-적-이다' 형용사의 관형형으로 실현된 (68)의 'X-적-인'의 변이 형태로 처리한다면 이들은 모두 'X-적-이다'라는 형용사 술어에서 유도된 단일 성분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67)-(68) 쌍이 보이는 유사성을 설명하기에 보다 유리하다.[40]

---

40) 그러나 모든 'X-적'이 'X-적-인'에서 자동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가령 다음을 보면,

(ㄱ) 지적 소유권 / ?*지적인 소유권

'X-적'이 실현된 첫 번째 연쇄는 어느정도 굳어진 '복합어' 유형을 구성하고 있어 'X-적-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X-적-인'이 실현된 구성에 'X-적'을 대응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ㄴ) 이기적인 사람 / ?*이기적 사람

위와 같은 현상은 일정 어휘 'X'에 기반한 'X-적-인' 자체가 'X-적' 구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 동반되는 명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ㄴ)의 쌍은 다음의 (ㄷ) 예문과 대조를 이룬다.

(ㄷ) 이기적인 행동 / 이기적 행동

마찬가지로 모든 'X-적'이 'X-적-이다'와 자동으로 대응되는 것도 아니다. 위의 (ㄱ)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은 'X-적-이다' 구문이 허용되지 않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ㄹ) *소유권이 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X-적-이다'를 형용사 범주에서 처리하고, 'X-적'을 '명사'나 '관형사'와 같은 독립 범주에서 설정하는 것을 피하였다.[41] 본 연구에서 관찰된 'X-적-이다' 형용사는 현재 약 700여개에 이른다. 이는 현행 인쇄사전에 등재된 'X-적' 유형들에 기반하여 구축된 것으로, 'X-적-이다' 형용사는 다른 형용사 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42]

3.3. 소위 '의성/의태어' 표현과 연관된 형용사 유형

현행 인쇄사전에 등재된 형용사 표제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가 바로 '의성/의태어' 표현으로 명명되어 온 형태들과 연관된 형용사 유형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9) 까슬까슬하다　　근질근질하다　　꼬깃꼬깃하다
　　꼽슬꼽슬하다　　미끈미끈하다　　삐걱삐걱하다
　　철컥철컥하다　　푹신푹신하다　　호리호리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상태나 속성을 기술하는 형용사 범주의 의미적인 속성상 소위 '상태성'을 묘사하는 '의태어' 표현이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형성하게 되며, '동작성'을 기술하는 '의태어' 유형 및 '소리'를 묘사하는 '의성어' 계열은 '하다'나 '거리다', '대다' 등을 수반하여 '동사'를 유도하게 된다. '의성/의태어' 표현은 한국어에서 매우 발달해 있는 어휘 현상중의 하나로서 대부분의 경우 '부사'적 요소로 기능을 하는데, 한국어 단순 부사 전체에서 이들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어휘수의 그 방대함을 가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행 사전의 '형용사'와 '동사'의 표제어에서도 이들과 연관된 형태들이 가장

그러나 여기서 보이는 'X-적'과 'X-적-인', 'X-적-이다' 사이의 대응 관계는, 'X-적-이다' 자체가 가지는 어휘·형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공기하는 성분들과의 통사·의미적인 제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41) 앞서 'N-이다' 형용사 부류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X-적-이다' 형용사의 의미적 부정 표현(<+Neg>)을 살펴보면, 'X-적-이-지 않다', 'X-적-이-지 못하다'와 같은 형태뿐 아니라, 'X-적-이 아니다'와 같은 구문이 대응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X-적-이 되다'(예: 기영이는 그 일 이후로 더욱 호의적이 되었다: 홍재성((2001a)참고)와 같은 구문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후치사 '이'를 수반하는 특징은 'X-적'을 명사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X-적' 연쇄의 이와 같은 교차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쉽게 종결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

42) 본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X-적' 형태에는 부사적인 용법만을 보이는 유형들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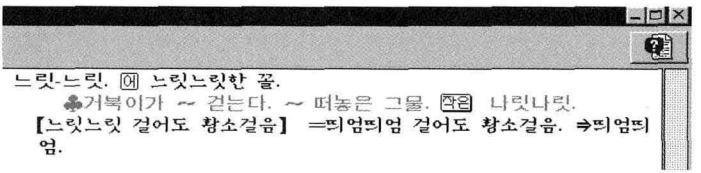
(ㄱ) 가급적 빨리 오너라
(ㄴ) 그는 비교적 빨리 돌아왔다

위에서 '가급적'과 '비교적'은 'X-적-이다' 구성을 허용하지 않는 부사들로서, 이들은 그대로 부사 전자사전의 표제어가 된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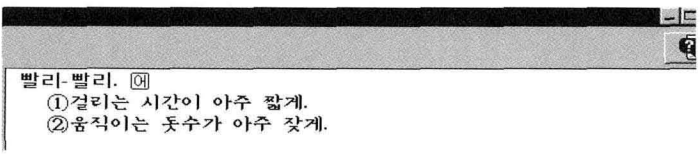
예를 들어 형용사 범주에서 '하다'류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65%가 넘는데, 이 때 이 '하다'류 형용사 중에서 소위 '의성/의태어'와 관련된 유형이 2/3 정도에 이른다. 문제는 형용사 전체 어휘에서 이와 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의성/의태어' 관련 유형이 명시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의성/의태어' 자체에 대한 모호한 정의의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현행 인쇄 사전을 보면 일반적으로 {소리}나 {상태}, {모양}, {꼴}, {느낌}과 같은 표현으로 풀이되는 형용사 유형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전마다 이와 같은 표기 원칙이 제대로 일관성있게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 그 판단 근거가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또는 어떤 형태적인 특징이 사전편찬자의 판단에 암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반영되기도 한다. 다음을 보면,[44]

(70)



표제어 '느릿느릿'은 '느릿느릿한 꼴'이라는 풀이말을 근거로 일종의 '의태어'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이와 의미적으로 동일 계열에 속하는 다음 표제어는 위와 같은 방식의 풀이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의성/의태어' 목록의 구축에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71)



그렇다면 가령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현행 사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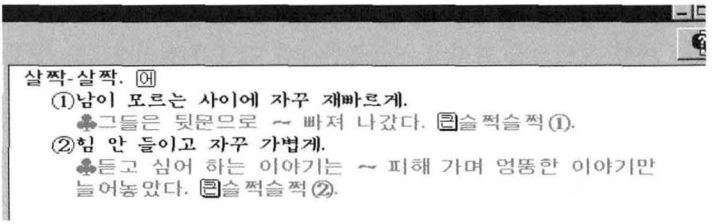
(72) 슬쩍슬쩍 살짝살짝 몰래몰래
부랴부랴 두리뭉술 두루뭉술

43) 동사의 경우, 'N-하다' 유형은 동사 목록에서 제외하여 복합 동사구로 처리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조사한 결과임.

44) 앞서도 본 바와 같이, (70)-(71)-(73)의 화면들은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의 CD-ROM 버전 1.0(1995)의 예를 보인다.

위의 형태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태어들과 그 의미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사한 성격을 보이며, 형태적인 특징에 있어서도 음절의 반복 구조를 보인다든지 음소 변이에 의한 2개 이상의 쌍을 형성한다든지 하는 전형적인 '의성/의태어'들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화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모두의 풀이말에는 위의 (70)의 예처럼 '의태어' 유형으로 처리될 수 있는 형식적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73)



더구나 '슬쩍슬쩍', '살짝살짝', '몰래몰래', '부랴부랴'는 일단 부사로는 등재되어 있으나, '두리뭉술'과 '두루뭉술'은 일종의 어기와 같은 비자립형태로 간주된 탓인지 표제어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45]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미적 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성/의태어'를 일정 형태적 특성(예를 들어 '음절 반복 구조'의 특성)에 의해 규정하는 것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문제가 된다.

(74) 바로바로 고생고생 아주아주
두고두고 서로서로 사이사이
어서어서 차례차례

위의 예들은 모두 앞서 살핀 형태들처럼 음절의 반복 구조 구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사전에서 '의성/의태어'의 일종으로 풀이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어떤 {모양}이나 {꼴}, 또는 {느낌}으로 풀이되기 어려운 형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의성/의태어'의 문제 역시, 형식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어휘 범주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외연을 확정지은 후, 이들 어휘들의 형태-의미적인 속성을 귀납적으로 기술해 나가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전통적인 언어 연구 방식의 산물

45) 위의 예들에 대한 현행 사전의 불일치 현상의 몇가지 경우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랴부랴'는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는 {모양}이라는 풀이말을 갖는 의태어 유형으로 나타나나 다른 사전들에는 이러한 표지가 실현되지 않은 일반 부사로 처리되고 있으며, 반면 '살짝살짝'과 '슬쩍슬쩍'의 경우는 이희승 사전에만 {모양}이라는 풀이말을 갖는다. '몰래몰래'의 경우는 이희승 사전에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라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의미 직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대표적 현상들을 수집한 후 이들에 대한 형태-의미적 특징들을 나열하는 방식이 사전 편찬에까지 적용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사나 형용사, 동사 사전에서 과연 '의성/의태어'라는 하위 유형의 설정 자체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위의 각 문법 범주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수적 중요성의 측면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부사와 형용사, 동사 범주에서 이들 '의성/의태어' 형태와 연관지을 수 있는 어휘의 수는 이들 각 문법 범주마다 전체의 반에 가깝거나 이를 넘어서는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이들 유형의 특이한 조어적인 생산성으로 인해 각 사전에서 발견되는 관련 어휘의 목록은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부사뿐 아니라, 형용사 및 동사 부류의 전체 표제어의 수와 하위 분류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의성/의태어' 관련 어휘 성분들에 대한 형식적인 정의가 현재 주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어 형용사 전자사전의 체계적인 목록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들 관련 유형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외연의 확장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하다' 유형의 형용사를 구성하는 어휘 성분들 중에서 '형태변이쌍'이 2개 이상 존재하는 모든 성분들은 별도로 검토하여,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생성 가능한 형태가 발견되면 이들을 모두 수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현재 이렇게 획득된 변이쌍은 전체 500여개에 이르며,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다' 형용사 전체는 약 2600여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룬다. 이들에 대한 일부 예를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의성/의태어' 유형과 연관된 형용사 부류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1	DECOS-ADJ	CODE	HADA	SYM	SYM-SET	ADV
2	가물가물하다	ADJ	AH	SYM	H-024	ADV
3	까물까물하다	ADJ	AH	SYM	H-024	ADV
4	거물거물하다	ADJ	AH	SYM	H-024	ADV
5	꺼물꺼물하다	ADJ	AH	SYM	H-024	ADV
6	가뭇가뭇하다	ADJ	AH	SYM	H-025	ADV
7	까뭇까뭇하다	ADJ	AH	SYM	H-025	ADV
8	거뭇거뭇하다	ADJ	AH	SYM	H-025	ADV
9	꺼뭇꺼뭇하다	ADJ	AH	SYM	H-025	ADV
10	가분가분하다	ADJ	AH	SYM	H-026	ADV
11	가뿐가뿐하다	ADJ	AH	SYM	H-026	ADV
12	거분거분하다	ADJ	AH	SYM	H-026	ADV
13	거뿐거뿐하다	ADJ	AH	SYM	H-026	ADV
14	가붓가붓하다	ADJ	AH	SYM	H-027	ADV
15	가뿟가뿟하다	ADJ	AH	SYM	H-027	ADV
16	거붓거붓하다	ADJ	AH	SYM	H-027	ADV
17	거뿟거뿟하다	ADJ	AH	SYM	H-027	ADV
18	가슬가슬하다	ADJ	AH	SYM	H-028	ADV
19	까슬까슬하다	ADJ	AH	SYM	H-028	ADV
20	거슬거슬하다	ADJ	AH	SYM	H-028	ADV
21	꺼슬꺼슬하다	ADJ	AH	SYM	H-028	ADV
22	가슴츠레하다	ADJ	AH	SYM	H-029	ADV
23	거슴츠레하다	ADJ	AH	SYM	H-029	ADV
24	가칠가칠하다	ADJ	AH	SYM	H-030	ADV
25	까칠까칠하다	ADJ	AH	SYM	H-030	ADV
26	거칠거칠하다	ADJ	AH	SYM	H-030	ADV
27	꺼칠꺼칠하다	ADJ	AH	SYM	H-030	ADV
28	가칫가칫하다	ADJ	AH	SYM	H-031	ADV
29	까칫까칫하다	ADJ	AH	SYM	H-031	ADV
30	거칫거칫하다	ADJ	AH	SYM	H-031	ADV
31	꺼칫꺼칫하다	ADJ	AH	SYM	H-031	ADV
32	간간짭잘하다	ADJ	AH	SYM	H-032	ADV
33	간간짭짤하다	ADJ	AH	SYM	H-032	ADV
34	건건찝질하다	ADJ	AH	SYM	H-032	ADV
35	건건찝찔하다	ADJ	AH	SYM	H-032	ADV

(위의 표에서 'ADJ'는 '형용사'임을, 'AH'는 '하다'류 형용사임을, 'SYM'은 '의성/의태어' 관련 유형임을, 'H-024' 등은 음운변이쌍 클라스 코드를, 그리고 'ADV'는 '하다'가 결합하기 이전의 '의성/의태어' 부분이 부사로서 성립하는가 여부를 보여준다.)

4. 한국어 형용사 전자사전 DECOS-ADJ의 구성

이상에서 논의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구축한 형용사 전자사전 DECOS-ADJ은 현재 6,000여개의 표제어를 내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중 '하다' 유형 형용사는 모두 3,900여개에 이른다. 이는 전체 형용사의 약 65%에 해당한다. '하다' 형용사 전체에서 위의 '의성/의태어' 관련 형용사는 현재 2,600여개 정도이며 그 외의 형태(명사 또는 비자립성 어기로서 대체로 2음절 한자어로 구성)에 '하다'가 결합한 유형은 약 1,300여개이다.[46] 즉 '의성/의태어'와 관련을 보이는 형태는 '하다' 형용사의 2/3에 해당하며, 전체 형용사에서는 40%를 넘는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구축된 형용사 기본형 전자사전은 실제 자동 텍스트 처리를 위해서는 각각의 '기본형(canonical form)'에 대한 모든 활용 정보를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컴퓨터가 실제로 처리해야 하는 텍스트에 실현되는 형용사는 이와 같은 '기본형'이 아니라 문법적 표지(즉 활용 어미)가 부착된 '활용형(inflectional form)'의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 형용사의 활용 변화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며 그 수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용형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형용사 전체의 마지막 음절별 클라스 분류를 수행하였다. 현재 형용사 기본형 사전(DECOS-ADJ)에 등재된 형용사 전체에 대한 끝음절별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150여개의 클라스가 형성된다.

다음 <표 3>은 형용사 어간 끝음절별 클라스들에 있어서, 해당되는 형용사가 가장 많은 클라스 유형(즉 '하(다)')부터 형용사 5개를 내포한 클라스 유형까지만을 발췌하여 보이고 있다. 여기 발췌된 형용사 전체의 수는 모두 5,711개로, 전체 6,000여개의 95%가 넘는다. 즉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형용사의 수는 불과 5%에 지나지 않으나, 전체 끝음절별 클라스의 2/3에 해당하는 100여개 클라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6)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의 경우, 명사에 '하다'가 결합한 형태는 DECOS 형용사 사전의 표제어로 다루고 있는 반면, 'N-하다'류 동사 구문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입장을 취한다. 'N-하다' 동사 구문에 대해서는 단순(파생)동사, 복합동사, 동사구 등의 여러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N-를 하다'와 대응되는 동사구로 간주하고(이때 '하다'는 기능동사의 일종), 동사 전자사전의 표제어로 설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N-하다' 형용사 부류와는 달리, 'N-하다' 동사구문은 매우 규칙적으로 'N-를 하다' 유형의 동사구와 대응 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사성이 없는 일정 성분(X)에 '하다'가 결합한 경우가 관찰되는데 이는 약 80여개로, 이때 X는 거의 단음절어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취하다', '구하다', '토하다', '택하다', '망하다' 등과 같다.

<표 3> 형용사 어간 끝음절별 클라스에 있어 형용사 5개 내포하는 클라스까지의 유형

번호	끝음절유형	클라스 코드	예	형용사개수
1	하	A147	가깝하다	3960
2	이	A150	내성적이다	727
3	럽	A060	다행스럽다	391
4	이	A117	극성이다	80
5	지	A130	다부지다	62
6	롭	A063	괴롭다	59
7	없	A110	그지없다	30
8	랗	A058	동그랗다	27
9	르	A064	고르다	26
10	맞	A072	능글맞다	26
11	되	A046	고되다	21
12	렇	A061	퍼렇다	20
13	리	A067	비리다	20
14	차	A137	당차다	19
15	나	A027	엄청나다	16
16	찮	A138	귀찮다	16
17	잖	A120	점잖다	13
18	프	A146	고프다	13
19	궂	A017	짓궂다	11
20	르	A065	푸르다	11
21	쩍	A136	겸연쩍다	10
22	같	A003	똑같다	9
23	겋	A008	벌겋다	9
24	르	A066	부르다	9
25	세	A096	거세다	9
26	강	A004	빨갛다	8
27	겁	A007	뜨겁다	8
28	망	A073	조그맣다	8
29	겹	A010	역겹다	7
30	기	A019	끈질기다	7
31	껍	A025	두껍다	7
32	맑	A070	맑다	7
33	쁘	A090	기쁘다	7
34	깝	A023	가깝다	6
35	납	A029	사납다	6
36	영	A115	부옇다	6
37	갑	A002	따갑다	5
38	길	A020	길다	5
39	덥	A045	덥다	5
40	뜨	A054	굼뜨다	5
41	렵	A062	가렵다	5
42	멍	A077	꺼멓다	5
43	시	A099	부시다	5
44	싸	A102	비싸다	5
Total				5711

(전체 150여개의 클라스로 분류된 6000여개의 한국어 형용사에 대한 분류표에서 발췌)

이와 같이 끝음절별 클라스가 구성되면 다시 동일한 활용어미류를 취하는 유형들이 하나의 '활용 클라스'를 구성하게 되는데, 가령 <표 3>에서 보인 다음 예들은,

(75)

번호	끝음절유형	클라스 코드	예	형용사개수
3	**럽**	**A060**	다행스럽다	391
27	**겁**	**A007**	뜨겁다	8
29	**겹**	**A010**	역겹다	7
31	**껍**	**A025**	두껍다	7
39	**덥**	**A045**	덥다	5
41	**렵**	**A062**	가렵다	5

모두 동일한 활용 어미류를 취하게 되므로(예: '워서', '우니', '우면') 최종적으로 동일한 활용 클라스를 구성하게 된다. 반면 다음의 예들도 모두 'ㅂ'종성 형용사들이나, 이들은 소위 '규칙' 활용의 속성을 보이는 형용사들로서

(76)

번호	끝음절유형	클라스 코드	예	형용사개수
65	**좁**	**A126**	좁다	3

번호	끝음절유형	클라스 코드	예	형용사개수
127	**줍**	**A129**	수줍다	1

위의 (75)의 형용사들과는 다른 활용 어미류를 취하고 있으므로 (예: '아서', '으니', '으면'/'어서', '으니', '으면') 각각 별도의 활용 클라스를 구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 유형별로 클라스를 구성하면, 이들을 중심으로 활용 클라스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 용이해진다. 그러나 단순히 끝음절 유형만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활용 클라스 코드를 부여하기 위한 1차 자료가 구성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서 보이는 형용사들은,

(77) 고르다
부르다
푸르다

모두 동일한 끝음절 '르'를 취하고 있으나, 그 활용형들을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서로 상이하게 실현된다.

(78) 고르다: 골라, 골라서, 고르면, ...
부르다: 불러, 불러서, 부르면, ...
푸르다: 푸르러, 푸르러서, 푸르면, ...

그러므로 이와 같이 '르'를 끝음절로 취하는 형용사 46개는 끝음절별 클라스 구성 단계에서 1개의 클라스가 아닌, 다음과 같은 3개의 변별적인 클라스로 분류되었다.

(79)

번호	끝음절유형	클라스 코드	예	형용사개수
9	르	**A064**	고르다	26
20	르	**A065**	푸르다	11
24	르	**A066**	부르다	9

<표 3>에서 '이'로 끝나는 형용사 부류가 2개의 클라스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X-적-이다' 유형 형용사와 'N-이다' 유형 형용사가 동일한 활용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형용사 6,000여개 전체에 대하여 끝음절별 클라스가 구성되면, 이는 결합 가능한 활용 어미의 유형에 따라 설정되는 <형용사 활용 클라스>의 구축을 위한 1차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이와 같이 구축된 한국어 형용사 '기본형' 전자사전 DECOS-ADJ는 각 개별 표제어에 부착되는 활용 클라스 코드를 통하여 '활용형' 전자사전 DECOF-ADJ의 자동 생성을 가능하게 하며, 후자가 비로소 한국어 자동 처리 시스템에서 실제로 참조되는 전자 사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 형용사 전자사전 DECOS-ADJ의 구축 작업에서 발견된 현행 인쇄 사전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입장을 기술하였다. 현재 구축된 형용사 전자사전은 모두 6,000여개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다. 이것은 '활용형' 전자사전 DECOF-ADJ의 자동 생성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며,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별 분류를 수행한 결과 모두 150여개의 클라스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이 형용사 어휘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이들과 결합하여 활용 형태들을 생성하는 '활용어미(inflectional suffix)'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 활용어미 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며, 그 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어미 체계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수행되면 여기서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텍스트 처리를 위한 형용사 활용형 전자사전의 자동 생성이 가능해진다. 이때 생성되는 활용형 사전은 유한상태 트랜스듀서(Finite-State Transducer)의 형태로 자동 시스템에 내장되어 형태소분석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활용형 사전이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를 오토마타의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압축할 때 하드웨어상의 공간 및 사전 검색 속도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논의의 초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간단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정교하고 신뢰할만한 형용사 활용형 사전을 구성하느냐 하는, 언어학적 기술(description) 능력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형용사 활용형 사전을 획득하기 위해 형용사 기본형에 대한 체계적인 어휘부가 구축되면, 이들을 술어로 하는 형용사 술어 구문들에 대한 구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자동 처리시 구문분석(parsing) 단계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구문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47]

참 고 문 헌

강승식 · 김영택. (1992).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에서의 불규칙 용언의 분석 모형. 한국정보과학회 논문지 19(2). 한국정보과학회.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덕봉 · 최기선. (1993). DDAG: 효율적인 한국어 형태소 해석 방법. 제5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김종명. (2002). 한국어의 동사 II.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김현권. (2003 예정). 한국어의 동사 III.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김현미. (2003). 한국어 부사의 형태구조적 분류 및 공기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지순. (2001). 명사 전자사전 어휘부 구성을 위한 어기, 접사, <X-적>의 연구. 한국어학 13. 한국어학회.

노용균. (1998). 낱말 · 패러다임 형태 이론에 입각한 영어동사 굴절 해석 프로그램의 구현. 언어와 정보 2(2). 한국언어정보학회.

목정수 · 연재훈. (2000). 상징부사(의성/의태어)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손남익. (1995). 국어부사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신기철 · 신용철. (1990).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유현경. (1996). 국어 형용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현경. (1997). 활용형에 제약이 있는 형용사의 사전적 처리, 사전편찬학연구 제7집. 한국문화사.

이병규. (1998). '명사+하다'류의 사전적 처리. 사전편찬학연구 제8집. 한국문화사.

47) 형용사 술어 구문에 대한 구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Nam(1996), 유현경(1996), Kim(1998), Chung(1998)을 참고할 것.

이희승. (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정희정. (2000). 한국어 명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구문. 어학연구 3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최병진. (2002). 어휘 정보 구축을 위한 사전텍스트의 구조 분석 - 전산 사전 편찬학적 접근. 언어와 정보 6(2). 한국언어정보학회.
최현배. (1929/1989).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한글학회. (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홍재성. (2001a). 한국어의 명사 I. 새국어생활 11(3). 국립국어연구원.
홍재성. (2001b). 한국어의 명사 II. 새국어생활 11(4). 국립국어연구원.
홍재성 외. (2001). 21세기 세종전자사전. http://www.sejong.or.kr.
홍재성. (2002). 동사 I. 새국어생활 12(3). 국립국어연구원.
Chung, M.-C. (1998). *Les Nominalisations d'adjectifs en Coréen: Les Constructions Nominales à Support Issda.* Thèse de Doctorat. Paris: Université Paris 7.
Courtois, B. (1987). *Dictionnaire Electronique du LADL pour Les Mots Simples du Francais (DELAS).* RT du LADL N-17. Université Paris 7.
Gross, M. (1989). La construction de dictionnaires électroniques. *Annales des Télécommunications.* Tome 44. N-1 : 2. Issy-les-Moulineaux/ Lannion: CNET.
Gross, M. (1993). *Presentation of the LADL.* Unpublished. p.27. LADL. Paris: Université Paris 7.
Kim, J.-M. (1998). *Lexique-grammaire d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Thèse de Doctorat. Montreal: Université du Quebec à Montreal.
Meunier, A. (1981). *Nominalisation d'adjectifs par Verbes Supports.*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 7.
Mohri, M. (1994). Compact natural language representations by finite-state transducers. IGM TR-94-17. Université de Marne-la- Vallée.
Nam, J.-S. (1990). Sur une construction *N0 N1-ita* en coréen. *Lingvisticae Investigationes* Vol. XIV:2.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Nam, J.-S. (1991). *Etablissement du Corpus des Adjectifs Coréens.* Rapport technique N-30. Paris: Institut Blaise Pascal. Université Paris 7.
Nam, J.-S. (1995). *Constructions Adjectivales à Complément Datif et Nominalisation de Verbes Supports d'adjectifs.* Mémoires du CERIL N-13, IGM. Université de Marne-la-Vallée.
Nam, J.-S. (1996a). *Classification Syntaxique d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en Corée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Nam, J.-S.. (1996b). *Lexicon of Korean Predicative Terms Classified by Morphological Ending Forms Vol.1/Vol.2.* IGM TR 96-8/9. Institut Gaspard Monge. Université de Marne-la-Vallée.
Picabia, L. (1978). *L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du Français.* Geneve: Droz.
Silberztein, M. (1993). *Dictionnaires Electroniques et Analyse Automatique de Textes - Le Système INTEX.* Paris: Masson.

남 지 순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89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전자우편 : namjs@hufs.ac.kr

접수일자 : 2002. 12. 1
수정본 접수 : 2003. 2. 22
게재결정 : 2003. 2. 24